

진행된 편도 편평세포암에서 병합 항암방사선치료 (Concurrent Chemora Diotherapy)의 경험과 치료성적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¹⁾
혈액종양내과학교실,²⁾ 치료방사선과학교실³⁾

손영익¹⁾ · 백정환¹⁾ · 홍병수¹⁾ · 이현석¹⁾ · 김원석²⁾ · 안용찬³⁾

배경 및 목적 : 편도에 발생하는 편평세포암의 치료로서 과거에는 진행암의 경우 수술과 술후 방사선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 치료로서 인식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여러 새로운 치료 방법들이 개발되어 치료성적이 향상되고 있다. 최근 진행된 두경부 편평세포암에서 병합 항암방사선치료를 이용한 좋은 치료성적과 장기보존의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는 바, 편도의 편평세포암에서의 본 치료를 이용한 치험례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방 법 : 최근 5년간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원격전이가 없었던 진행병기(3, 4기)의 편도 편평세포암으로 진단받고 병합 항암방사선치료를 시행한 환자 6례를 대상으로 진료기록을 후향분석하였다. 치료군 6례의 치료반응 정도를 분석하였으며, 시술 중이나 시술 후 치료에 따른 독성의 양상과 중증도를 고찰하였다.

결 과 : 병합 항암방사선치료 환자 6례 중 4례는 수술이 불가능한 증례였고, 2례는 수술을 거부하여 본 치료를 시행하였다. 6례 중 5례에서 계획된 치료를 완료할 수 있었고, 1례는 전신독성으로 인한 불완전 치료예였다. 치료를 완료한 환자 전례에서 완전관해가 가능하였고 관해 후 재발 소견없이 전례가 무병상태이다. 불완전치료예 1례는 불완전관해 상태였다. 본 치료의 독성으로는 점막염, 구강건조, 오심, 빈혈, 흡인성폐렴 등이 있었으나 1례를 제외하면 독성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완료할 수 있었다.

결 론 : 편도 편평세포암은 진행암에서도 병합 항암방사선치료의 성적이 비교적 양호하였다. 향후 편도암의 치료시 본 치료법 역시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보다 많은 대상군에서의 치료 성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